

부산항 정기기항 국내외 선사 국제노선 급증

정기선 실태조사, 71개 선사·255개항로 운용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에 정기 기항하는 선사와 국제항로가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 기항 정기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항에 정기선을 기항시키고 있는 선사는 국적선사 16개, 외국선사 55개 등 71개사였다.

이들 선사는 부산항에서 전세계 100개국의 500개 항만을 상대로 255개 서비스 노선을 개설, 운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9개 선사, 217개 항로에 비해 각각 44.9%와 17.5%가 증가한 것으로 항로의 경우 세계 3, 4위 항만인 중국 상하이항 230여개, 선전항 165개보다 많아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임을 입증했다.

지역별 항로 분포는 일본이 6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아 44개, 중국 39개, 미국 36개, 남미 20개, 유럽 19개, 호주 10개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4년 사이 동남아와 미국, 남미, 중동지역 서비스 노선이 눈에 띄게 늘어나 부산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체 항로 중 50개와 27개는 각각 광양항과 울산항을 이중으로 기항하고 있고, 외국선사들은 139개 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세계 30대 선사 모두가 부산항에 자사 선박을 기항시키고 있었다.

외국선사 가운데 일본 NYK와 프랑스 CMA-CGM, 중국 차이나쉬핑이 각각 가장 많은 10개 항로를, 싱가포르 APL과 중국 코스코 등이 각각

8개 항로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의 경우 동아해운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 16개 항로를 개설해 가장 많았고 고려해운 14개, 범주해운 13개, 장금상선 11개, 한진해운 10개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2년 945만3천TEU에서 지난해 1천184만3천TEU로 25.3% 늘어났다.

부산-히로시마항로 여객운송 재개

지난해 8월 중단된 부산-히로시마 항로의 여객운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히로시마 항로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고, 8월 중에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즉시 면허를 내줄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양부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가칭 '부산-히로시마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과 재무구조를 평가해 7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 중 총평점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21일에는 히로시마현 공항항만국장이 방한해 우리 정부 당국자와 항로재개를 협의한 바 있다.

부산-히로시마 항로는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히로시마현이 120억원을 투입해 히로시마항에 국제카페리여객부두를 신축하는 등 의욕을 보임으로써 시작됐다.

2002년 10월 (주)부관훼리에 면허된 부산-히로시마 항로는 지난해 8월 여객과 화물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해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체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6월 자진 폐업했다.